

# 1인가구 급증하는데...일자리·주거 안정 '취약'

## ECONOMY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 한은, 1인가구 현황·소비지출 영향 분석

광주 36.5%·전남 37.1%

2050년 40% 돌파 전망

일시·임시근로 비중 높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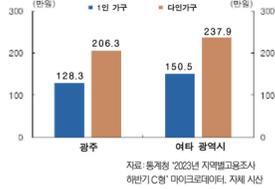
다인가구 소득 60% 수준

"지속성장 위한 접근 필요"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가 10가구 중 3가구 꼴로 급증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주거 안정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과 소비지출 영향 분석'(안지연 경제조사팀 과장·조진오 업무팀 조사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 1인가구 비중은 36.5%(22만9000가구)로 전국 평균(3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오는 2050년에는 40.3%(24만1000가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은 37.1%(29만5000가구)로, 2050년 42.0%(32만6000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광주·여타 광역시 가구 월평균 소득



세부적으로 광주지역은 30~50대 구간에서 남성 1인가구가 많고 60대 이상에서 여성 1인가구가 많았다. 전남지역은 30~50대 구간에서 남성 1인가구가 많고 70대 이상에서 여성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증한 1인가구의 경제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28만3000원)은 다인가구주 월평균 소득(206만3000원)의 62.2% 수준에 불과했고 다른 광역시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50만5000원)에 비해서도 2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03만9000원)도 다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58만6000원)의 6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도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40만4000원)보다 약 25% 낮았다.

또 1인가구주는 임시·일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광주지역 상용근로자 비중은 50.2%로 다인가구주(56.6%)보다 낮은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31.5%로 다인가구주(1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광역시(상용근로자 비중 55.8%, 임시·일용근로자 26.4%)에 비해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 상용근로자 비중은 27.2%로 다인가구주(32.0%)보다 낮은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31.5%로 다인가구주(11.7%)보다 높았다.

주택 점유형태는 광주지역 자가비중이 35.7%로 다인가구(7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월세비중은 47.4%로 다인가구(14.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자가비중은 58.0%로 다인가구(77.8%)보다 낮은 수준이며, 월세비중은 25.2%로 역시 다인가구(9.8%)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가구 유형별 소비 지출 특징에서도 1인가구는 식비(32.1%)와 주거비(18.1%)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다인가구에 비해 높았다.

다인 가구 소비 지출은 식비(25.4%), 교육비(8.6%), 차량 유지비(8.1%), 주거비(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인가구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숙박, 부동산, 음식료품 등 부문에서 생산유발 효과를 미치는 한편 음식·숙박, 보건복지, 운송 등 부문에서 고용유발 효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연 과장은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1인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광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공채

24일까지 접수...지역·일반인재 부문 10여명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8~24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상반기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7급 중견 행원(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올해 8월 졸업예정자)으로, 채용인원은 10여명이다.

전형 절차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와 사람인 구직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필기전형(NCS, 일반상식, 인성검사), 1차·2차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초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채용은 지역인재, 일반인재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 분야는 광주·전남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올해 8월 졸업예정자로, 일반인재 분야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올해 8월 졸업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격, 우대사항, 전형절차 및



일정,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새소식 또는 사람인 구직 사이트(https://kjbank.saramin.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성 인사지원부장은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열정과 패기, 도전정신을 지닌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

연중 동일	개편안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현행	개편안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
2일 전	0%	2일 전	0%	0%	0%
1일 전~1시간 이전	5%	1일 전~3시간 이전	5%	7.5%	10%
1시간 미만~출발 전	10%	3시간 미만~출발 전	10%	15%	20%
출발 후~도착예정시간 이전	30%	출발 후~도착예정시간 이전	2025년 50% 2026년 60% 2027년 70%		
도착예정시간 초과	100%	도착시간 초과	100%		

연립뉴스 자료:국토교통부

## 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인상

주말·명절 15~20%

출발 3시간 전 적용

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승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현아 기자 aura@



"스마트 디퓨저 사용해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메종드컨셉' 매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담은 '스마트 디퓨저' 신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해당 상품은 자동분사 방향 기능과 함께 블루투스 스피커 및 조명 기능까지 '3 in 1' 기능을 하나로 담았다. 유니크하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오브제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내 어플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이 밖에 해당 매장에서는 실리컨, 테이블 램프 등 다양한 제품과 함께 이달 말까지 '디퓨저 1+1' 행사도 병행한다.

## 광주상의,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

제조기업 6개사 선착순 모집...경영활성화 일조

광주상공회의소는 조달청 나라장터 중합소평몰 입점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증대와 경영활성화를 위해 '2025년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지난 2018년부터 광주시 지원을 받아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지원대상은 직접생산증서 및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지역 내 제조기업으로 6개사를 선착순 모집, 전문가 컨설팅(300만원 상당)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연간 약 196조원에 해당하는 공공조달 시장은 기존 수의계약 및 구매일괄 공고

발주 방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나라장터 소평몰을 통한 조달발품 판매실적은 지난 2023년 이후 매년 26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조달청 플랫폼 사이트 등 등록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중소기업 역시 나라장터 소평몰 입점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 등으로 개별기업 혼자 힘으로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광주상의는 지역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강화해 나라장터 등 전국 주요 기관의 입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나라장터 소평몰에 입점, 단기간에 약 10억원의 납품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기여해왔다"며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누리집(www.gjcc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광기술원, AI로 빔공해 막는다

이미지 분석 솔루션 시연...영상인식 활용

한국광기술원은 최근 본원과 LED조명 실증센터에서 'AI 빔공해 이미지 분석 솔루션'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술은 잘못된 인공조명 사용으로 생기는 빔공해를 줄여 국민 건강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사업의 첫 성과다. 빔공해는 밤을 지나치게 밝히는 조명 때문에 잠을 방해받거나 환경이 손상되는 문제다.

시연회에는 안중기 환경부 과장을 비롯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솔루션은 AI 영상인식 기술(YOLOv

8x 모델)을 활용해 위도계로 찍은 사진에서 빔공해를 일으키는 조명을 찾아내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진은 걸러내고, 얼굴이나 번호판 같은 개인정보는 자온 뒤 조명의 밝기만 추출한다. 여기에 지역별 빔공해 상황을 지도로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도 갖췄다.

시연회에서는 빔 밝기를 측정할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하자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지도에 빔공해 수준을 표시했다. 이 기술은 광주시와 1년간 협력하며 연구했고, 현재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중복 사진 판별 정확도는 88%, 조명 탐지와 분류 정확도는 0.81 이상을 기록했고,

분석 시간은 기존 대비 6분의 1로 줄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 지원 아래 지난 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며, ㈜고백기술이 주관하고 한국광기술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개발팀은 환경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데이터를 확보, 정확도를 95% 이상, 정밀도를 0.9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최종 성과물은 한국환경공단과 이관돼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빔공해 관리에 활용된다.

신경호 한국광기술원 스마트조명연구센터장은 "기존의 빠른 빔공해 데이터 수집 기술에 이 AI 솔루션이 더해져 환경부가 빔공해를 미리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내년까지 발전할 것"이라며 "빔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경부하기 수요 창출' 공모전

전력거래소 내달 6일까지 접수

전력거래소는 '경부하기 수요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력수급 여건 변화로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는 발전량이 과잉되고 전력수요는 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경부하기 낮 시간대(오전 10시~오후 4시) 전력수요 창출 아이디어'로, 참가자는 공모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smartgrid@kpx.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신규 전력수요 창출 효과성, 전력계통 안정화 활용성, 비용 및 편의 경제성 등 종합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석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전력거래소 이사장 표창과 함께 총 5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자 전원에게는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견학 기회가 주어지며,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경부하기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현대차그룹 '디자인 경영' 입증

iF디자인어워드 본상 26개 수상

현대차그룹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202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26개 상품을 휩쓸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증명했다.

독일 국제포럼디자인 주관으로 1954년부터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데드라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제품, 프로페셔널 콘셉트, 커뮤니티케이션, 실내 건축,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서비스 디자인 등 7개 부문에서 본상 26개를 받았다.

제품 부문 자동차 카테고리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9, 디올 뉴 팔리세이드, 이니시스 콘셉트, 기아 EV3, 제네시스 엑스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가 선정됐다.

수소 기반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 'DICE', 스마트 택시 인디케이터, 글로벌 전기차(EV) 홈 충전기, 이피트(E-Pit) 급속 충전기, 차량용 멀티 탠저 세트 등이 제품 부문 본상을 받았다.

프로페셔널 콘셉트 부문에서는 제네시스 네오 콘셉트, 수소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콘셉트 'SPACE'가 뽑혔다.

차용 로봇 '엑스를 솔더'(제품),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ACR) 서비스(서비스 디자인 부문) 등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